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시공업계의 현황과 대응방안 Present Situation and Corresponding Strategy of Construction Area in Market Opening



황 상 모\*

### 1. 머리말

오늘날 건설상품은 초대형, 초정밀, 초고속의 super scale로 발전하였으며, 금세기에 접어들어 인간은 온도와 음파, 광파와 속도를 극복하였다. 그리하여 초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대 과학기술은 모두 건설산업에 응용되어 우리의 생활환경을 건설하고 현대적 도시사회를 조성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돈독한 생활을 실현시키는데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인류문화의 발전은 건설산업의 발전에 좌우되며 특히 건설산업의 발전없이 생활문화의 질적향상은 이룰수 없다.

그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자체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신기술, 신상품을 건설상품에 활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사회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구촌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더구나 이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이 현실화 되고 W.T.O 가입으로 인해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이상 건설산업의 대응력은 시장의 다변화와 상품의 다양화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 2. 시장개방과 국내업계의 시각

#### 2.1 건설시장개방 시기 및 내용

UR협상과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우리의 건설업체는 선진국 유수 건설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먼저 민간부문 건설시장개방은 UR/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되어 UR협정이 '93년 12월에 타결됨에 따라 '95년 7월부터 발효될 전망으로 건설업부문의 100% 단독투자법인설립은 '95년 1월부터, 지사 설립은 '96년 1월부터 허용된다.

또한 공공건설시장은 GATT/정부조달 협상에서 논의되어 GATT/정부조달확장 협상이 '93년

\* 정회원, 럭키개발(주) 부사장

12월에 타결됨에 따라 '97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으로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약 53억이상, 지방정부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60억 이상 공사가 가능하며, 건축설계부분은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1.5억이상,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2.2억이상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UR 및 정부조달협상의 양허안에 따라 외국업체도 우리나라의 건설업면허,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원칙,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국내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입찰자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나 입찰공고에 명기된 특정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선정토록 되어있다.

## 2.2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업계의 시각

건설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대별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업체의 해외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술, 자금, 정보능력 등의 열세를 슬기롭게 개혁한다면 우리의 건설업은 제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각종 기술용역 관련제도와의 입찰, 계약등의 제도 및 이에 따른 시장질서가 국제관행에 맞도록 점차 개선되고 국내업체나 정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므로 시장개방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UR협상에 따라 시장보호막이 제거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하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기술개발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또, 민간기업도 경영혁신을 통하여 전문화, 복합화, 국제화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체계에 있어서는 외국건설업체와 국내건설업체가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려고 하므로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선진국 업체에 의

한 국내시장의 일부 잠식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체나 기술력이 약한 엔지니어링 회사는 수주가 어렵게 되어 도산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업체에 흡수 또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외국산 기자재의 국내 반입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UR협정후 무관세화 품목으로 965개 품목을 양허할 예정이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선진국 기자재나 가격이 아주 저렴한 개발도상국의 기자재들이 무관세로 반입될 것이므로 국내 기자재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 3. 국내 건설업의 환경 및 현황

### 3.1 건설관련제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짧은 기간내에 전통적 농업경제에서 현대적 공업경제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지구촌의 몇안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목표를 달성하였고 건설관련 정책 또한 관리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경제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자연히 직업의 전문화와 다양한 직종으로 고도화하게 되는 바, 이는 분업과 협업의 체제로 조직이 다원화 된다. 따라서 당연히 건설산업분야의 조직구성 또한 이같은 다원화된 체제로 발전시켜 변화하는 사회의 시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어야만 했다.

그 실례로써 정부는 연간 3만~5만호 정도의 주택생산력에 맞추어 마련된 건설관련제도를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연 40~50만호의 주택생산을 추진하여 수년안에 200만호 생산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부실공사 등의 휴유증을 낳아 앞으로 많은 사회비용을 국민이 감당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 3.2 건설공사 추진체계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사회발전수준은 이미

초기공업화 시대를 벗어나 전산업사회로 진입하여 수입대체산업과 단순가공산업이 주종을 이뤘던 국가경제가 이때부터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업제품을 생산하면서 새로운 공정개발과 새로운 제품 개발 등 창의적인 협동작업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중동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관리기법과 선진경영체제하에서 공사를 훌륭히 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체의 이러한 역할과 내용을 국내건설공사 추진체계에 활용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 3.3 시장의 자율화

건설산업과 관련된 생산품은 사실상 공공재 내지 준공공재이므로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였으나 정부의 개입 방법이 주로 시장개입 또는 가격통제 위주로 비합리적이어서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떠넘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가격통제는 신기술, 신상품 개발의 지를 약화시켜 정례화된 규정에 맞는 또는 이에 미달하는 제품만을 생산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이 현실화 된 지금 W.T.O 가입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이에 대한 의제기가 당연히 따를 것이고, 주택 및 관련자재등의 가격통제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 3.4 전문가(인재) 및 기능공 육성

그동안 건설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요인은 어느 특정부문만의 잘못이라기 보다 우리사회가 추구하여 왔던 본질적인 국민정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국가행정(사법)고시에 최연소자의 합격은 모든 마스크업이 경쟁적으로 취재의 열기를 더하는것이 현실이나 의사나 기술사는 최연소 합격할 수 없는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있고, 자격시험

을 치를 수 있는 법적기준연수가 의사의 경우 9년, 기술사의 경우 11년이나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지않은 사람은 없으나 공과대학을 졸업해서 기술사가 된 사람은 극소수이다.

물론 공학적 기술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인본사상에 근거해야 함에는 틀림없으나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별도로 관료중시사회, 특히 사농공상의 뿌리깊은 유교적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기술의 낙후와 공학분야의 전문가(인재) 및 기능공 양성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건설상품의 품질은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기능공의 숙련도와 정성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에 따른 3D현상을 근원적으로 타개할 만한 대책-기능공 양성소 설립, 복지후생책, 완전고용제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3.5 기술개발

국내의 건설기술수준은 施工分野의 경우에는 미흡하나마 국제수준에 근접하였다고 하나, soft 기술은 선진국수준에 현격할 정도로 낙후되어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며 그 결과 해외시장의 위축, 고도기술에 대한 외국의존도 증가 및 건설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간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투자실적이 전산업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고 부설연구소나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형식적 운영으로 기술축적이 미흡하며 인력양성도 부진한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연구소들은 몇몇 연구소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연구소가 적지 않다.

특히 근래 사회적인 요구수준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라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품질과 기능등이 요청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소요강도, 내구성, 시공성 등을 고도화 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4.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1995년은 대외적으로 건설시장이 개방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설행정을 마련할 것이기에 우리나라 건설산업발전에 기대되는 바 크다.

이러한 기대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형건설사고 또는 필요시마다 수없이 제정된 건설관련법률을 통폐합하여 재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차체에 분명하게 정립하여 특성 있고 창의적인 건설행정을 시행함으로써 21세기에는 새로운 건설 문화를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는 고도의 분업화를 발전하여 다양화 되므로 업종별 분업체제는 필수적이고, 협업체제의 기초는 바로 기능계층간의 자율성에서 비롯되므로 이같은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즉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건설공사 추진체제를 필히 재정립 하여야겠다.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의 건설산업의 대응력은 시장의 다변화와 상품의 다양화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력을 배가시켜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이제는 우리 기업과 건설인들이 이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시장자율화의 방안을 속히 강구하여야겠다. 자유경쟁체제의 구축은 가격상승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나, 이제 시장이 개방되고 수요자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졌으므로 건설업체나 전문기자재 업체가 자의적으로 생산품에 대한 품질개선을 강구하게끔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겠다. 건설공사에는 수많은 자재와 부품이 투입되고 있으나 부품과 자재의 규격, 성능 및 기능의 표준화 미비로 인하여 자재 손실율이 증대하고 품질확보 차원의 감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설계표준화, 부품표준화 그리고 시공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시공단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실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을 추방하여야겠다.

현행 제도상 시공과정에서 생산품 인도시까지의 시공업체와 건축주 및 End - User 간의 공사부실과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를 실수요자가 감수하여야 하고 이로인하여 사회의 불신감이 누적되어 신용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또한 고도화, 전문화, 세분화된 건설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분야별 전문가 및 기능공에 대한 육성기관이 없어 건설산업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전문가 및 기능공 육성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특히 민간건설업체들은 자사제품의 품질 곧 기능공의 복지책과 안정된 고용책 마련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공동 출자와 정부지원에 의한 기능공 양성소 마련 및 협력업체 육성에 따른 완전월급제 실시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은 UR에 이어 그린라운드를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논의가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건설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도 시급하다.

끝으로 국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연구기관에서 행하는 연구의 내용을 재정의하여 기업이윤과 기초 연구, 정책적인 연구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여야 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산, 학, 연 협동 연구체제 구축 및 이에 따른 인재육성책이 마련되어야만 하겠다.

#### 5. 맺음말

영화와 연극이 예술의 종합적이고 이것이 고유의 문화 형태로 표현될 때 그 민족의 몸짓과 삶이라면, 자동차 산업은 그 나라의 공업수준을 대표하는 산업의 척도이다. 이에 비해 건설산업은 그 나

라의 종합적인 국가기술수준 및 문화수준의 척도이며 나아가 민족관광산업의 미래지향적 부존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경제는 물론 국가의 기술과 문화 및 후대에 남겨줄 관광수요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겠다. 그러므로 단지 시장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손익에 대한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인식

의 전환으로 사회의 각 기능집단별 의식재무장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다시말해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정의성과 신뢰성이 구비된 기술력이 지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하며, 더불어 전문가는 보다 겸허하게 인본의 기초 위에 전문가다운 기술력을 발휘할 때 우리 건설산업은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국제협력강화로 국가의 발전목표를 한차원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

## 도서발간 안내

###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매뉴얼 - 건축 구조설계 도표집 -

본 도표집은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를 위한 보조도서로서 도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설계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설계과정에서 반복되는 계산을 함축하여 계산과정을 단축시켜 설계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극한강도 설계공식에 근거되어 설계 도표를 작성하였으며, 도표 작성의 근거를 밝히고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계예제를 통하여 적용실례를 보여 주어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도표집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각각 다음 부재 설계를 내용으로 한다.

#### 제 1 권 보, 브라켓, 기초의 설계

- 1) 단근장방형보
- 2) 복근장방형보
- 3) T형보
- 4) 브라켓, 전단마찰 부재
- 5) 장방형기초

#### 제 2 권 기둥, 벽체의 설계

- 1) 기둥 : 장방형 및 원형단면
- 2) 벽체

#### 제 3 권 슬래브의 설계

- 1) 일방향 슬래브
- 2) 이방향 슬래브 : 직접설계법, 등가골조법